

“다문화 공간의 지역성과 예술실험”

-리트머스와 원곡동-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유승덕

최근 들어 일어나는 미술계의 흐름, 그 중에서도 대안공간의 흐름은 중앙과 지방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위 1세대로 분류되는 서울에 위치한 대안공간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는 역으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대안공간들의 활동은 오히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7년도에 문을 연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도 다른 지역 기반의 공간들처럼 지역적 컨텍스트가 공간운영 방향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자리 잡고 있는 원곡동 지역은 이주민의 인구분포가 내국인을 앞지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지대로 약 40여개 국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 150여개의 식당을 포함한 500여개의 업소들이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주민들로 원곡동 국경없는마을 거리가 가득 메워진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환경은 리트머스의 활동방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리트머스에서 그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원곡동의 다문화적인 정체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늘 발제의 주요 골자는 다문화라는 지역적 정체성이 어떻게 리트머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열거하는데 있지 않다. 그것보다는 지역적 문맥 안에서의 예술실험과 실천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그 역할의 실질적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그 실질적 가능성의 서로 다른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리트머스에서 진행했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곡동의 다문화적 컨텍스트가 각개의 프로그램과 작업에 어떻게 육화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

리트머스가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를 운영하기 시작 한 것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올해에는 두 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은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경기문화재단의 재정적인 후원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스로 1년 중에 몇 개월을 할애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리트머스 레지던스를 포함해서 지역 대안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레지던스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에 비해 시설 면이나 운영인력 면에서도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성과 긴밀하게 밀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원곡동이라는 다문화적인 지역성에 주목하면서 출발한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만들어 내는 혼종교배된 이 지역만의 특수성과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관찰과 연구가 작가적 시각으로 재해석되며 창작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이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특성이기도 하다. 일정기간 동안 스튜디오에 머물면서 작업하는 정주 개념이 아닌 원곡동 일대를 창작의 대상지이자 스튜디오로 삼아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입주작가 스스로가 찾아다니며 접촉하고 경험하는 그야말로 ‘이동’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리트머스에서 진행했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시아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트머스 레지던스는 2008년 <듀얼게임>, 2009년 <로띠 위에 한국식 카레 밥> 이란 타이틀로 진행되었는데, 1차적으로 선정된 한국 작가들을 외국(아시아)으로 파견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작업 파트너를 직접 섭외하고 현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파트너 작가를 차후에 원곡동으로 불러들여 협업방식의 작업을 진행하는 '듀얼게임'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낯선 외국 땅에서 벌어지는 셀프 매니지먼트 방식의 진행은 일부 참여 작가에게 힘든 과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작가 스스로가 국제교류의 경험을 쌓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독창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프로그램에는 캄보디아, 말레시아, 네팔, 베트남 작가 4명과 한국작가 4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문화와 작업세계에 대한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안에서 협력프로젝트를 마쳤다. 2008년 듀얼게임에 이어 2009년에도 듀얼게임 방식의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로띠 위에 한국식 카레 밥>이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한 이 프로그램에는 8쌍의 국내외 작가가 짝을 이루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특이사항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동일한 시기에 <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라는 흥대 클럽데이를 원곡동식으로 차용한 다문화예술행사가 리트머스의 주도하에 원곡동일대에서 벌어졌는데, 일부 입주 작가는 퍼포먼스 등의 작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 지역축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지대인 원곡동의 중심지인 만남의 광장에서 작가들 나름대로 해석한 이 지역의 특성을 관객참여형 작업으로 풀어내고 이를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불특정 다수의 이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하나 아쉬운 점은 그동안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한 듀얼게임 방식의 진행은 파트너 작가 간의 시각차,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프로그램 컨셉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솔로게임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독창성 있는 듀얼게임 방식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올해도 <원곡동 레시피>라는 국제 레지던스와 <IR-인터커넥팅로드>라는 국내 레지던스가 원곡동의 다문화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이 사항이 있다면 그동안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추진하던 국내외를 오가며 진행하던 듀얼게임의 방식을 올해는 잠정적으로 접었다. 하지만 국내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국외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두 레지던시 입주 작가간의 교류와 협업의 가능성을 강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어 놓았다.

2010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원곡동 레시피>는 조리법이라는 레시피의 의미를 창작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원곡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재료 삼아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레시피 자체가 물질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요리 그 자체가 아니듯이 원곡동 레시피 프로그램도 작업결과보다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실험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거리로 나온 레지던스'를 표방하는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특성상 올해도 작가들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 대신에 원곡동 거리와 외국인주민센터가 이들의 창작활동 레시피 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기관(안산외국인주민센터)과 예술단체(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진행될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예술가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민과 관련단체 모두의 행사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원곡동 레시피와 동일한 기간에 국내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인 <IR-인터커넥팅로드>가 진행된다. 지리적으로 안산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의 최대거주지역인 원곡동이 있고 남쪽은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이 시작되는 지역이다. 다문화특구인 원곡동에 위치한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과 반월·시화공단에 만들어질 레지던스(IR-인터커넥팅로드 레지던스) 공간을 이원으로 연결하는 본 프로그램은 문화생산과 공장생산, 주거지와 일터, 이주와 정주라는 두 지점들을 교차하며 예술적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 역시 창작공간 위주의 기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지양하고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 역사, 지리적 환경 자체를 작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창작활동으로 연결하는 실험적인 과정과 태도의 생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리트머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하여 다문화적인 지역성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늘 소개하지 않은 리트머스의 다른 활동(전시, 교육,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도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원곡동의 다문화적인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리트머스의 예술실험이나 활동이 지역적 컨텍스트에서 기인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 받은 다른 공간들의 지역성과의 등식(예를 들면 스톤엔워터와 석수시장, 스페이스 빔과 배다리, 매미하면 대인시장을 떠올리는 것처럼)만으로는 이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선한 관심거리를 주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지역기반의 공간들의 예술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역성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리트머스와 원곡동

리트머스가 원곡동에 자리잡은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리트머스하면 '다문화'를 떠올린다. 그간 리트머스에서 많은 다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리트머스가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과 더욱 관련 있는 것 같다. 리트머스의 경우만 살펴보다라도 문화와 장소개념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리트머스가 추진했던 활동은 이 지역을 위한 예술활동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역의 지역적 맥락에 주목하는 예술활동이었을까? 이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리트머스의 활동은 후자 쪽으로 더 기울었던 것 같다. 지역에 자리 잡은 공간들이 그 지역공동체의 현안에 눈을 돌리고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동안 리트머스에서 진행했던 다문화프로그램, 예를들어 <인터-카페>, <올라뽕파이>, <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 <원곡동 사람들> 등도 이 지역 공동체의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 지역의 주인인 이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이주민관련단체에서 하는 활동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의 권익문제나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물론 우리의 활동이 그러한 활동을 금기시 여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공공미술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예술가가 사회복지사나 취로사업 근로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야 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무거운 의무감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들의 역사와 교육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현장의 첫 구절처럼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든 국가, 지역공동체, 가족공동체로부터

거의 무한에 가까운 희생과 책임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리트머스를 방문하는 방송국 피디와 다문화관련단체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상상하는 바는 모든 리트머스의 예술가가 항상 이주민과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모범적이고 때로는 드라마틱한 다문화활동의 사례를 양산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혹은 다문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세를 쫓기 위해 이용하는 다문화와 관련된 이미지 양산에 우리가 기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워크숍에서 스톤앤워터의 박찬웅관장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지자체나 다른 재래시장에서 박찬웅 관장에게 예술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하우를 알려 달라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석수시장이라는 도심 재래시장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톤앤워터의 활동이 왜곡되거나 너무 확대해석해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리트머스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스톤앤워터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스페이스 빔이 배다리지역을 난개발로부터 구제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곳에 자리 잡았을까? 실제 위에 언급한 단체 중에 지역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 자체가 한 문화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단체들의 예술활동은 그 지역공동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치의 속성은 끝임 없이 계열화 시키고 위계를 만들고 혼돈을 정리하는 작업이라 본다면 예술은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계열화된 질서를 해체시키고 분리된 경계 지점을 지우며 분리된 구역들을 뒤섞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리트머스가 했던 활동들도 위에 언급한 예술의 속성처럼 체계적인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오히려 기존 질서나 상식의 경계를 지우는 지점 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리트머스를 예술가공동체로 규정짓는다면 이 공동체는 신화화되고 일체화된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지워낸 토대 위에 선다. 다시 말해 이견(dissensus)을 없애고 공동체를 하나의 목적 아래 묶는 합의(consensus)의 공동체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이견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인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현상이 투명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유희와 교환의 놀이는 부담스런 명분을 지워내고 다양한 문화가 좁은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원곡동의 새로운 문화생산의 단초를 제공한다. 원곡동이란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흘러가는 것들(때로는 형태도 없고, 내용도 가지지 않은 무형의 실체들)을 주목하고 이를 다시 붙들어 매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이러한 작업들은 리트머스의 활동이기도 하면서 원곡동을 현재진행형으로 살게 만드는 동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을 지칭해서 이견 단지 원곡동의 지역적 맥락에 주목하는 예술활동이지, 이 지역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만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활동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부정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동안의 리트머스의 활동은 아직도 다문화가 공존하는 원곡동 지역의 피상적인 특이함을 주목하는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리트머스의 활동은 이 피상적인 흥미로움을 벗어나 그 너머에 있는 다양한 다문화적 현상과 환경에 보다 섬세한 시선을 던질 필요가 있다. 40여 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뿜어내는 각기 다른 문화가 경계를 짓지 않고, 길거리에 퍼진 양꼬치 냄새처럼 시공을 넘나드는 이상한 나라의 원곡동, 이 동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풍성한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일, 이 일은 삶과 예술, 인종과

인종, 문화와 문화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알아가는 방식이며, 세상을 몸으로(혹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